

알리는 말씀

1. 오늘 스미스채플 **한국어 예배**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
2. **다음 주일 (9/7)은 연합 예배로 오전 10 시에 드릴 예정입니다.** 예배 후 친교는 **Pot-luck** 으로 가질 예정이오니 함께 친교를 나눌 음식을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날은 한국어 예배가 없는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3. 오늘 예배 후에 **예배 시간 조정**을 놓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4.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는 **함께 세워나가는 예배 및 한 몸 공동체를 지향**합니다. 매주 예배 순서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. 기도하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예배로의 부름	대표기도	성경봉독	말씀	성찬위원
8/31 박진철	김연미	이신천	강호	강주은
9/7		10 시 연합예배		
9/14 강주혜	양성심	김종문	강호	김호연
9/21 박미자	박진철	양성심	강호	이신천

5. **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8:45 PM** 에 있습니다. 계신 처소에서 우리가 **선교적 삶, 선교적 가정, 선교적 교회**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.
6. **속회 모임 안내: 매주 목요일 저녁 7 시 (온라인)**
7. **매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.** 한주도 주님을 알고 **Know Jesus, 또 주님을 알리며 Make Him Known** 사시는 **가장 복된 삶**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.

월 (9/1)	화 (9/2)	수 (9/3)	목 (9/4)	금 (9/5)	토 (9/6)	주일(9/7)
시 119:65-72	딤후 1:1-9	사 57:14-21	시 1	골 4:7-17	신 29:2-20	연합예배

글로벌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.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, 아낌없이 사랑하고,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 multiply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예배에 참석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하시는 분은 **Connection Card** 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
선교적 삶! 선교적 가정! 선교적 교회!
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

11321 Beach Mill Road, Great Falls, VA 22066. 571-434-9680
www.SmithChapelGMC.org/in-Great-Falls



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그레이트폴스 캠퍼스

한국어 예배

2025 년 8 월 31 일

낮 12 시 30 분

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

“여호와와 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.” - 역대상 16:29

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모하기 위함이다.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로봇과 같은 그리스도인, 판에 박은 그리스도인, 겉모습에 치장만 한 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.

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각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역동적으로 도록 하기 위함이다.

물론 이 말이 우리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. 성령님은 우리의 선입관에 사로잡히거나 판에 박은 듯한 형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.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. 즉, **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.**

예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여기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아니다.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. 각 사람이 자기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. - A.W. 토저

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

시편 51:10-12

박진철

“아, 하나님,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.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,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.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,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.”

*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

찬송 Hymn

259.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
284.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

대표기도 Prayer

김연미

응답 찬송 Responding Hymn

631. 우리 기도를

¹³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, 야고보가 대답하였다. “형제 여러분,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. ¹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,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. ¹⁵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.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¹⁶ ‘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,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,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,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. ¹⁷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,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. ¹⁸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, 주님은 옛부터,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.’ ¹⁹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, ²⁰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,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말씀 Sermon

강호

교회는 나에게 ‘편한 집’인가 ‘순례길’인가?

말씀 노트:

적용 질문

1. 나에게 교회는 지금 “집처럼 편안한 곳”입니까, 아니면 “순례자의 길”입니까?
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습니까?
2. 내 문화 속에서 복음이 편안히 자리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?
3. 동시에 복음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?

성찬식 Holy Communion

성찬위원: 강주은

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**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**

505. 온 세상 위하여

축도 Benediction

*가능하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